

잠언 18:24의 번역 재고와 제안 — 참된 우정에 관한 격언¹⁾의 관점에서 —

조용현*

1. 서론

잠언 18:24는 우정에 관한 격언이다.²⁾ 여러 학자가 지적하듯이 잠언 18:24의 마소라 본문은 다양하게 번역된다.³⁾ 그 이유는 상반절의 두 단어

* Brite Divinity School at Texas Christian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yhcho@htus.ac.kr. 이 논문은 2022년 호남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본 글은 ‘잠언’이라는 용어를 개별 잠언의 모음집, 즉 구약성서의 성문서를 이루는 책을 뜻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며, 개별 잠언을 가리킬 때는 ‘격언’을 사용한다. 우리말로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책 제목은 ‘미של레이(משלים)’로 “다양한 형태와 장르의 격언”을 뜻하는 명사 ‘마살(משל)’의 남성 복수 연계형이다. 즉, ‘미של레이’는 개별 잠언의 모음집을 의미하는 제목이다. L. Kö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trans. (Leiden: Brill, 1994), 648. 한편, 우리말 ‘격언’(箴言)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을 뜻한다. 국립국어원 편, “격언(格言)”,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2.7.30.). 따라서 ‘격언’이라는 용어는 개별 잠언을 가리키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책 제목 ‘잠언’과 혼동될 소지를 줄인다. 또한 간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격언은 잠 10-29장에서 사용되는 짧은 속담을 지칭하는 말로 적절하며 잠 1-9장의 담화 형식의 교훈과도 구분될 수 있다.
- 2) 본 글은 우정을 사전적 정의인 “친구 사이의 정”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켜 우정에 관한 격언을 분석한다. 국립국어원 편, “우정(友情)”,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8278&searchKeywordTo=3 (2022.7.30.). 다만, 넓은 의미에서 친구로 간주할 수 있는 이웃과의 사귄 혹은 관계에 관한 격언도 포함된다.
- 3) R. C. Van Leeuwen, “The Book of Proverb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L. E. Keck, et al.,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75; R.

‘이쉬(אִישׁ)’와 ‘레히트로에아(לְהִתְרַעַע)’를 각각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번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글 『개역개정』(1998)은 잠언 18:24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אִישׁ רַעִים לְהִתְרַעַע וְיֵשׁ אֶהָב רֵבִב מְאֹד: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개역개정』은 ‘이쉬’와 ‘레히트로에아’를 각각 “자(者)”와 “해를 당하는”으로 번역하면서, 상반절의 “많은 친구”와 하반절의 “어떤 친구”의 수적 비교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개역개정』은 독자에게 많은 친구를 얻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친밀하고 진실한 친구를 얻으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개역개정』은 많은 친구를 얻는 것에 관하여 경고하면서 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친구의 양(量)보다는 질(質)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많은’ 친구와 ‘한 명’의 친구를 대조하는 『개역개정』을 읽는 독자는 잠언 18:24의 의미를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친구를 적게 사귀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참된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의 관점에 근거할 때 잠언 18:24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경고만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잠언 18:24를 비롯해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는 행위, 즉 거짓된 우정을 경계하면서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참된 우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본 글의 목적은 잠언 18:24의 다양한 번역을 고찰하고 이 구절이 뜻하는 바를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잠언 18:24의 마소라 본문이 가지고 있는 번역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번역을 위한 문법적, 문맥적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잠언 18:24의 의미를 참된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의 관점에서 찾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논의와 분석의 결과를 종합한 잠언 18:24의 번역을 제시할 것이다.

E. Murphy,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22 (Waco: Word Books, 1998), 138; R. E. Clements, “The Good Neighbour in the Book of Proverbs”, H. A. McKay and D. J. A. Clines, eds., *Of Prophets' Visions and the Wisdom of Sages: Essays in Honour of R. Norman Whybray on His Seventieth Birthda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217.

2. 잠언 18:24의 마소라 본문

잠언 18:24의 마소라 본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단어는 상반절의 ‘이쉬(אִישׁ)’와 ‘레히트로에아(לְהַתְּרִיעַ)’이다.

2.1. ‘이쉬’ 혹은 ‘예쉬’

2.1.1. ‘이쉬’

마소라 본문의 ‘이쉬’를 그대로 읽으면 “남자” 혹은 “사람”으로 해석된다.⁴⁾ 이 경우, ‘이쉬’는 남성 단수 명사 연계형이므로 바로 뒤에 있는 명사 ‘레임(רַעִים)’과 연결된다. ‘레임’은 “친구, 동료”를 뜻하는 ‘레아(רַעַי)’의 남성 복수 명사 절대형이다.⁵⁾ 따라서 ‘이쉬 레임’은 “친구들의 사람”으로 직역되며 영어 NAS(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7)의 “A man of many friends”가 여기에 해당한다.⁶⁾

그러나 “친구들의 사람”이라는 번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은 ‘이쉬’와 ‘레임’의 연계 상태를 일종의 소유관계로 간주하여 “친구들을 소유한 사람”으로 번역한다.⁷⁾ 예를 들면, 한글 『새번역』(2004)의 “친구를 많이 둔 사람”, 영어 GNV(Geneva, 1599)의 “A man that hath friends”와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의 “One who has unreliable friends”와 NKJ(New King James Version, 1982)의 “A man who has friends”와 맥케인(W. McKane)의 “A man has companions”⁸⁾와⁸⁾ NICOT(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의 “A person who has unreliable companions”,⁹⁾ 프랑스어 LSG(French Louis Segond, 1910)

4) HALOT, 43-44.

5) Ibid., 1253-1255.

6) 1995년과 2020년에 개정된 NAS는 잠 18:24의 ‘이쉬 레임’을 “A person of too many friends”로 번역하였다. 개정된 NAS는 부사 “too”를 삽입하여 너무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반절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한 명의) 친구’와의 대조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한다.

7) ‘이쉬 레임’의 히브리어 어순을 고려하면 NAS의 번역(“A man of many friends”)처럼 우리말로 “친구들의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자적인 번역이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우리말 조사 ‘의’가 표현하는 소유관계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말로 “사람의 친구들”로 번역해야 “사람이 소유한 친구들”로 이해된다. 이것은 우리말 조사 ‘의’가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며,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편, 『의』,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67237&searchKeywordTo=3 (2022.7.30).

8) W. McKane, *Proverbs, Old Testament Library: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85), 113.

9) B.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와 NEG(Nouvelle Edition Geneve, 1979)의 “Celui qui a beaucoup d’amis”와 TOB(French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le, 1988)의 “Qui a beaucoup de camarades”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마도 이러한 번역은 ‘이쉬’와 ‘레임’의 연계 상태를 “소유자, 창시자, 주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주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으로 간주한 결과로 보인다.¹⁰⁾ 그러나 히브리어 문법상 ‘이쉬’와 ‘레임’의 연계 상태를 주어적 속격으로 간주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주어적 속격에서 지배받는 명사(*nomen rectum*, 절대형 명사)가 지배하는 명사(*nomen regens*, 연계형 명사)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쉬 레임’을 주어적 속격으로 간주하려면 ‘이쉬’가 아니라 ‘레임’이 소유자가 되어 “사람의 친구들”, 즉 “사람을 소유한 친구들”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위에서 언급한 번역본들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하고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쉬’가 잠언을 비롯한 구약성서에서 연계형 명사로 사용될 때 소유관계를 의미하는 주어적 속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례가 없다는 점은 ‘이쉬 레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토이(C. H. Toy)에 따르면, ‘이쉬’ 다음에 오는 명사는 “개인의 자질”이나 “특정한 직업”을 표현한다(예. 잠 10:23; 12:2; 19:22; 29:4).¹¹⁾ 또한 게제니우스(W. Gesenius)도 ‘이쉬’가 연계형 명사로 사용되면서 다른 절대형 명사와 연계 상태를 이룰 때 “사람이 어떠한 대상이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예. 출 4:10; 삼상 16:18; 삼하 16:7; 왕상 2:26; 스 8:18; 시 140:12; 잠 15:18; 19:6; 24:5; 26:21; 29:1; 사 53:3).¹²⁾ 왈트키(B. K. Waltke)와 오코너(M. O’Connor)는 이러한 ‘이쉬’의 용법을 “형용사적 속격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5), 87.

10) W.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128g. 한편, 왈트키(B. K. Waltke)와 오코너(M. O’Connor)에 따르면 “주어적 속격” 중 “소유적 속격”은 “속격 용어”가 “연계형 용어”를 소유하는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9.5.1g.

11) C. H. To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899), 366. 참고로, 잠 10:23의 ‘이쉬 테부나(אִישׁ תְּבוּנָה)’는 “명철한 사람”, 12:2의 ‘이쉬 메짐모트(אִישׁ מְזִמּוֹת)’는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19:22의 ‘이쉬 카자브(אִישׁ כֹּזֵב)’는 “거짓말하는 사람”, 29:4의 ‘이쉬 테루모트(אִישׁ תְּרוּמוֹת)’는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뜻한다. 토이는 또한 창 46:34를 예로 들면서 ‘아느웨이 미크네(אֲנָשֵׁי מִקְנֵה)’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이 가축을 돌보는 것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12) W.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128s-t. 예를 들면, 출 4:10의 ‘이쉬 데바림(אִישׁ דְּבָרִים)’은 “말들을 소유한 사람(혹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유창한 사람”을 뜻한다.

(adjectival genitive)”으로 분류한 후 “속성의 속격(attributive genitive)”으로 더 세분화한다.¹³⁾ 그러므로 ‘이쉬 레임’은 문법적으로 주어적 속격이 아닌 속성의 속격으로 분류되어 “친구들과 잘 사귀는 사람” 혹은 “사교적인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다. 한글 『개역개정』의 “많은 친구를 얻는 자”,¹⁴⁾ 영어 ASV(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의 “He that maketh many friends”, 라틴어 VUL의 “vir amicalis ad societatem”, 히브리어 사전 HALOT의 “everybody’s friend”가 여기에 해당한다.¹⁵⁾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이쉬’의 성격이나 속성을 가리키는 속격의 명사로 사물이나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레임’과 같이 사람이 사용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쉬 레임’을 속성의 속격으로 간주하여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1.2. ‘예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쉬’를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하여 뒤의 ‘레임’과 함께 연계 상태로 간주할 때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BHS 잠언의 편집자인 피흐트너(J. Fichtner)는 잠언 18:24의 비평장치에서 ‘이쉬’ 대신 ‘예쉬(עֵשִׂי)’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예쉬’는 불변화사(particle)로 “~이 있다(it exists, there is)”를 뜻한다.¹⁶⁾ 피흐트너가 ‘이쉬’ 대신 ‘예쉬’로 읽는 사본상의 증거로는 마소라 본문의 가장자리에서 특별한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진 “세비르(Sebir)”,¹⁷⁾ 홉스-과슨스의 출간에 따른 그리스어 역본들, 시리아(페슈타) 역본, 탈군이 있다.¹⁸⁾

13) 왈트키와 오코너는 절대형 명사가 연계형 명사의 형용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형용사적 속격”으로 분류한다.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9.5.3a.

14) 『개역개정』의 번역,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속성의 속격을 반영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다만, “얻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거저 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라는 뜻보다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소유(“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보다는 속성(“많은 친구를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 더 가깝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개역개정』을 속성의 속격을 반영하는 번역에 포함했다. 국립국어원 편, “얻다”,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58308&searchKeywordTo=3 (2022.7.30.).

15) HALOT, 43.

16) *Ibid.*, 443-444.

17) 켈리(P. H. Kelly), 마이넷(D. S. Mynatt), 크로포드(T. G. Crawford)에 따르면 ‘세비르(סביר)’는 “סביר”의 약어 표현이며 아람어의 수동 분사로서 “추정되는”을 뜻한다.” P. H. 켈리, D. S. 마이넷, T. G. 크로포드,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192.

18) J. Fichtner, “Proverbia”, Albrecht Alt, et al.,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7), 1299. 칠십인역(LXX)에는 잠 18:24가 없어서 마소라 본문과 비교할 수 없다.

BHS 비평장치의 ‘예쉬’로 읽으면 클리포드(R. J. Clifford)와 요더(C. R. Yoder)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하반절에서도 사용된 ‘예쉬’와 평행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룬다.¹⁹⁾ 상반절의 ‘예쉬 레임’은 “~한 친구들이 있다”로 번역되면서 하반절의 ‘예쉬 오헤브(אָהֵבֵם שׁוֹמְרֵי)’의 번역, “~한 친구(직역: 사랑하는 사람)가 있다”와 완벽한 평행을 보여준다.²⁰⁾ 더욱이 잠언 18:24의 소마소라 난외주가 밝혀주듯이 ‘이쉬’와 ‘예쉬’ 간 혼동에 대한 마소라 본문의 수정 표시인 “세비르”는 사무엘하 14:19와 미가 6:10에서도 발견된다.²¹⁾ 또한 HALOT은 마소라 본문의 ‘이쉬’를 “사람”을 뜻하는 ‘이쉬(אִישׁ)’와 “~이 있다”를 뜻하는 ‘이쉬(אִישׁ)’로 나누고 후자의 ‘이쉬’를 ‘이쉬(אִישׁ)’로 읽을 수 있으며 “세비르”가 있는 사무엘하 14:19와 미가 6:10에서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²²⁾ 그러므로 마소라 본문의 ‘이쉬’를 ‘예쉬’로 수정하지 않고도 “~이 있다”를 뜻하는 단어로 읽을 수 있다.

마소라 본문의 ‘이쉬’를 “~이 있다”를 뜻하는 ‘이쉬(אִישׁ)’로 간주하거나 “세비르”처럼 ‘예쉬’로 수정하여 읽는 번역본으로는 한글 『공동개정』의 “사람도 있고”와 『성경』(2005)의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영어 BBE(The Bible in Basic English, 1949/64)와 NAB(The New American Bible, 1970), NJB(The New Jerusalem Bible, 1985), NLT(New Living Translation, 1996), RSV(Revised Standard Version, 1952)의 “There are friends”, TNK(Jewish Publication Society Tanakh, 1985)의 “There are companions”, 독일어 LB(Luther Bible, 2017)의 “Es gibt Allernächste”와 ZB(Zürcher Bibel, 2007)의 “Es gibt Gefährten”, 프랑스어 BFC(French Bible en français courant, 1997)의 “Il y a des amis”가 있고, 주석으로는 *Anchor Yale Bible Commentary*의 “There are companions”,²³⁾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와²⁴⁾ *The Old Testament*

19) R. J. Clifford, *Proverb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169; C. R. Yoder, *Proverbs*,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201.

20) ‘오헤브’는 “사랑하다”를 뜻하는 동사 ‘아헤브’의 칼 능동분사 남성 단수형으로, 직역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잠 18:24의 문맥에서는 애정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를 야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사람, 즉 “친구”를 뜻한다. ‘오헤브’가 잠 18:24와 같이 “사람의 친구”를 뜻하는 예로는 예 5:10, 14; 시 38:12; 88:19; 잠 14:20; 27:6; 렬 20:4가 있다. HALOT, 17-18; D. J. A. Clines,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40.

21) J. de Waard, *Proverbs*, Biblia Hebraica Quinta 17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8), 27.

22) ‘이쉬(אִישׁ)’는 우가릿어 단어 “*ii*”, 아랍어 단어 “*ايت*”과 “*ايت*”에 상응하는 단어이다. HALOT, 44; M. V. Fox, *Proverbs 10-3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18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647.

23) M. V. Fox, *Proverbs 10-31*, 646.

24) C. H. Toy, *Proverbs*, 365.

Library와²⁵⁾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의²⁶⁾ “There are friends”가 있다. 또한 “~이 있다”로 번역하지는 않지만 “어떤 친구들은 …, 한 친구는 …”의 대조를 전달하는 번역으로는 영어 NRS(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의 “Some friends …, a true friends …”가 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잠언 18:24의 마소라 본문의 ‘이쉬’를 “사람”을 뜻하는 남성 단수 연계형 명사(ישׁא)로 간주하여 ‘레임’과 연계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어색하다. 따라서 ‘이쉬’를 “~이 있다”를 뜻하는 불변화사 ‘이쉬(ישׁא)’나 같은 뜻을 지닌 불변화사 ‘예쉬(ישׁ)’로 읽어 해석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문맥적으로도 하반절의 ‘예쉬’와 평행을 이루며 “~한 친구들이 있다 … ~한 친구가 있다”라는 대조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2.2. ‘레히트로에아’ 혹은 ‘레히트라오트’

2.2.1. ‘레히트로에아’

잠언 18:24의 마소라 본문에서 ‘이쉬 레임’ 다음에 오는 단어는 ‘레히트로에아(להתרעע)’이다. ‘레히트로에아’는 전치사 ‘레(ל)’와 동사 ‘라아(רעע)’의 히트폴렐 부정사 연계형이 합쳐진 단어이다.²⁷⁾ 동사 ‘라아’는 아람어 단어이기도 하면서 히브리어 동사 ‘라아츠(רעץ)’의 동의어로 칼 형태는 “분쇄하다, 산산이 부수다(to smash, shatter)”를 뜻한다.²⁸⁾ ‘라아’의 히트폴렐 형태는 “두들겨 맞다, 산산이 부서지다(be beaten up, burst asunder)”를 뜻하며 잠언 18:24 외에 구약성서 중 이사야 24:19에서만 발견되는데 여기에서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사용되어 같은 어간의 정동사 ‘라아’의 의미를 강조한다.²⁹⁾

25) R. J. Clifford, *Proverbs*, 169.

26) T. Longman III,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353.

27) HALOT은 ‘레히트로에아’를 히트포엘로 분석한다. HALOT, 1271. 게제니우스는 “히트포엘(Hithpoel)”을 피엘의 특수한 활용인 “포엘(Poel)”의 재귀형으로 설명하면서도, 동사의 두 번째 어근에 ‘아인’이나 ‘파브’가 오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피엘의 활용 형태를 “폴렐(Poel)”로 제시한다. 따라서 게제니우스가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폴렐의 재귀형은 히트폴렐로 유추할 수 있다. W. 게제니우스,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55b-c. 한편, 왈트키와 오코너는 아인 중복 동사 혹은 중복 자음 동사(“germinate roots”)의 히트파엘 활용 형태를 히트폴렐로 명확하게 제시한다.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26.1.1c. 잠 18:24의 동사 ‘라아’는 두 번째 어근에 ‘아인’이 위치하기 때문에 히트포엘보다는 히트폴렐이 적합한 용어로 간주된다.

28) HALOT, 1271.

29) *Ibid.*, 사 24:19의 『개역개정』 번역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רעה החרעה)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이다.

한편, ‘라아’는 잠언 18:24에서 히트폴렐 부정사 연계형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재귀적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라아’의 히트폴렐 부정사 연계형 ‘히트로에아’는 잠언 18:24에서 “서로를 분쇄하다(to smash one another)”³⁰⁾ 혹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will be broken in pieces)”를 뜻한다.³¹⁾

‘레히트로에아’를 ‘라아’의 히트폴렐 부정사 연계형으로 해석하는 번역은 ‘라아’의 주어를 ‘이쉬’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레임’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이쉬’를 ‘레히트로에아’의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 히트폴렐의 재귀적 효과, 즉 주어(‘이쉬’)가 동사(‘레히트로에아’)의 행위를 받는 대상이 되면서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예로 한글 『개역개정』의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와 『새번역』의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영어 ASV의 “He that maketh many friends doeth it to his own destruction”와 NAS의 “A man of many friends comes to ruin”과 NIV의 “One who has unreliable friends soon comes to ruin”과 주석 NICOT의 “A person who has unreliable companions is about to be broken”,³²⁾ 프랑스어 LSG/NEG의 “Celui qui a beaucoup d’amis les a pour son malheur”와 TOB의 “Qui a beaucoup de camarades en sera écartelé”가 있다.

둘째, ‘레임’을 ‘레히트로에아’의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 ‘이쉬’가 주어일 때와 마찬가지로 히트폴렐의 재귀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친구들이 서로를 해친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한글 『성경』의 “서로 해나 끼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영어 NLT의 “There are friends who destroy each other”, 독일어 ZB의 “Es gibt Gefährten, die sich zugrunde richten”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레임’을 ‘레히트로에아’의 주어로 간주하되, 재귀적 의미보다는 친구들이 자신들을 소유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있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어 BBE의 “There are friends who may be a man’s destruction”과 NAB의 “There are friends who bring ruin”과 NJB의 “There are friends who point the way to ruin”, 독일어 EIN(Einheitsübersetzung, 2016)과 HRD(Die Bibel. Herder-Übersetzung Revidierte Fassung, 2005)의 “Manche Freunde führen ins Verderben”와 LB의 “Es gibt Allernächste, die bringen ins Verderben”, 프랑스

30) Ibid.

31)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The New Brown, Driver, Briggs,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950.

32) B.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87.

어 BFC의 “Il y a des amis qui mènent au malheur”가 있다.

‘이쉬’를 ‘레히트로에아’의 주어로 간주하는 번역은 하반절의 ‘오헤브’와의 대조를 통해 한 명 이상의 친구들을 소유하거나 사귀는 교제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이 경우, 잠언 18:24상반의 주된 목적은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경계하는 데 있다. 반면에 ‘레임’을 ‘레히트로에아’의 주어로 여기는 번역은 하반절에서 묘사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와의 대조를 통해 해를 끼치는 친구들의 위험성을 부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은 해를 끼치는 친구들보다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사귀라는 권고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2.2.2. ‘레히트라오트’

마소라 본문의 ‘레히트로에아’를 동사 ‘라아II(רעעו)’의 히트폴렐 부정사 연계형으로 분석하여 ‘이쉬’나 ‘레임’을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는 ‘이쉬’의 경우와 달리 문법적으로 어색한 점이 없다. 그러나 토이가 지적하듯이 상반절의 ‘레히트로에아’가 지닌 의미, 즉 “해를 끼치다”와 하반절에서 상응하는 단어 ‘다베크(דבק)’가 뜻하는 바인 “친밀하다”의 대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³³⁾ 왜냐하면 ‘다베크’는 동사 ‘다바크(דבק)’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사물의 표면에 접촉하여 달라붙은 상태의 “달은”(대하 3:12)을 뜻하거나 사물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게 관계적으로 “붙은”(신 4:4)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⁴⁾ ‘다베크’가 친밀하거나(『개역개정』) 가깝거나(『새번역』, 『공동개정』) 달라붙어 있는 상태(NRS)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도 상반절은 대조적으로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전달해야 그 의미가 자연스럽다는 점을 암시한다. 하반절의 ‘다베크’는 “(관계가) 친밀한”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와의 대조가 분명해지려면 상반절에는 “(관계가) 소원한” 혹은 “(관계가) 피상적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소라 본문 상반절의 ‘레히트로에아’는 하반절의 ‘다베크’와 의미상 대조가 분명하지 않다.

피흐트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BHS 비평장치에서 마소라 본문의 ‘레히트로에아(להתרעע)’ 대신 ‘레히트라오트(להתרעות)’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³⁵⁾ ‘레히트라오트’는 “~와 관계를 갖다, ~와 어울리다(to get oneself involved,

33) C. H. Toy, *Proverbs*, 365.

34) HALOT, 209.

35) J. Fichtner, “Proverbia”, 1299.

mixed up with)”를 뜻하는 동사 ‘라아II(רעהוII)’의 히트파엘 부정사 연계형이다.³⁶⁾ 피흐트너는 수정된 읽기인 ‘레히트라오트’의 근거로 잠언 22:24을 제시한다.³⁷⁾

사역

(잠 22:24)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תהרט)

분노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잠언 22:24상반의 ‘티트라(תהרט)’는 동사 ‘라아II’의 히트파엘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바로 앞의 부정어 ‘알(אל)’과 함께 “너는 ~와 사귀지 말 것이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티트라’는 ‘라아II’의 히트파엘 형태가 잠언에서 사용된 또 다른 예다. 그리고 동사 ‘라아II’의 칼 형태는 잠언 13:20; 28:7; 29:3에서 “~와 사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레히트라오트’는 ‘레히트로에아’보다 잠언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BHS 비평장치의 제안을 받아들여 ‘레히트라오트’로 읽히 바로 앞의 단어 ‘레임’의 정동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잠언 18:24상반은 “사귀려는 친구들이 있다”로 직역된다. 다만, 토이가 주장하듯이 ‘레히트라오트’를 부정사 연계형의 기능 중 하나인 “목적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귀는 데 목적을 갖는 친구들이 있다” 혹은 “사귀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다”로 번역된다.³⁸⁾ 또한, 폭스(M. V. Fox)와 같이 ‘레히트라오트’를 동사상 형용사(*gerundive*)로서의 부정사 연계형으로 간주하면 “사교적인 친구들이 있다”로 번역된다.³⁹⁾ 결국 ‘레히트라오트’는 하반절의 ‘다베크’가 뜻하는 친밀하고 생산적인 친구와는 반대로 피상적이고 소비적인 우정의 관계를 갖는 친구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는 고대 번역본에는 탈굼과 시리아 역본의 “동료가 되려는 친구들이 있다”(사역), VUL의 “*vir amicalis ad societatem*”가 있고, 영어 TNK의 “There are companions to keep one company”가 있고, 주석 *Anchor Yale Bible Commentary*의 “There are companions for socializing with”,⁴⁰⁾ *Word Biblical Commentary*의 “Friends—for one to associate with”,⁴¹⁾ *Baker Commentary*의 “There are

36) HALOT, 1262.

37) J. Fichtner, “Proverbia”, 1299.

38) C. H. Toy, *Proverbs*, 367.

39) M. V. Fox, *Proverbs 10-31*, 647.

40) *Ibid.*, 646.

41) R. E. Murphy, *Proverbs*, 134.

friends who want to associate”,⁴²⁾ 알터(R. Alter)의 “There is a companionable man to keep company with”,⁴³⁾ 맥케인의 “A man has companions for company”가 있다.⁴⁴⁾

그리고 ‘레히트라오트’를 “사귀다”로 직역하지 않고 “친구인 척하다”로 의역하는 번역본에는 영어 NRS의 “Some friends play at friendship”과 RSV의 “There are friends who pretend to be friends”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의역하는 번역본에는 영어 CEV(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1995)의 “Some friends don’t help”가 있으며, “(참된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낸다”로 의역하는 주석으로는 *The Old Testament Library*의 “There are friends who spend time with you”가 있고,⁴⁵⁾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쓸데 없는 이야기를 나눈다”로 의역하는 번역본으로는 영어 NEB(New English Bible, 1961)의 “Some companions are good only for idle talk”가 있다. 이러한 의역은 모두 하반절의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는 반대로 피상적인 우정을 유지하려는 친구들의 부정적인 면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수정된 읽기 ‘레히트라오트’를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 연계형이나 동사상 형용사로서의 부정사 연계형으로 간주하지 않고 의무를 표현하는 부정사 연계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왈트키와 오코너에 따르면, 전치사 ‘레’와 결합한 부정사 연계형이 동사가 없는 절 혹은 ‘예쉬’나 ‘에인’이 있는 절에서 사용되는 경우 “의무” 또는 “허락”을 뜻하는 “법조동사(modal)”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⁴⁶⁾ 잠언 18:24상반에서 전치사 ‘레’와 결합한 부정사 연계형 ‘레히트라오트’는 동사 없이 사용되었으므로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와 허락의 의미를 반영하는 번역본으로는 영어 GNV의 “A man that hath friends, ought to shew him selfe friendly”와 NKJ의 “A man who has friends must himself be friendly”와 YLT(Young’s Literal Translation, 1862/1898)의 “A man with friends is to show himself friendly”가 있다. ‘레히트라오트’를 의무를 표현하는 부정사 연계형으로 간주하는 경우, 잠언 18:24 상반절은 친구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는 교훈을 전하고 하반절은 그러한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의 예를 제시한다. 그러나 친구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42) T. Longman III, *Proverbs*, 353.

43) R. Alter, *The Wisdom Books: Job, Proverbs, and Ecclesiast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0), 273.

44) W. McKane, *Proverbs*, 113.

45) R. J. Clifford, *Proverbs*, 169

46)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36.2.3f.

상반절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강조하는 하반절이 의미상 대조를 명확하게 이루지 못한다.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한 번역본은 모두 ‘이쉬’를 사람으로 이해하여 상반절의 주어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가 친구들에게 해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우호적인 행동을 제시하지만, ‘이쉬’로 읽는 것이 지닌 문법적, 문맥적인 한계를 이미 지적했다. 그러므로 ‘레히트라오트’를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 연계형이나 동사상 형용사로서의 부정사 연계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마소라 본문의 ‘레히트로에아’로 읽으면 잠언 18:24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경계하거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를 사귀라고 권고하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반면, BHS 비평장치가 제안하는 ‘레히트라오트’로 읽으면 잠언 18:24는 두 종류의 친구들, 즉 소비적이고 피상적인 우정을 좇는 친구들과 친밀하고도 참된 우정을 추구하는 친구를 대조하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레히트로에아’와 ‘레히트라오트’ 모두 나름대로 잠언 18:24의 교훈과 강조점을 표현하지만, ‘레히트라오트’로 읽을 때 하반절에 사용된 ‘다베크’와의 의미상 대조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상반절의 ‘레임 레히트라오트’는 하반절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와는 반대로 우정을 소비하는 피상적인 친구들을 가리킨다. 잠언 18:24가 전달하는 소비적이고 피상적인 우정과 참된 우정의 대조는 우정에 관한 잠언의 다른 격언의 관점과도 부합된다.

3. 참된 우정에 관한 격언의 관점

잠언에는 18:24 외에도 우정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는 격언이 많이 있으며 그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⁴⁷⁾ ‘친구 사이의 정’으로서의

47) 잠언의 우정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T. Longman III, *Proverbs*, 555-557; A. J. Keefer, *The Book of Proverbs and Virtue Ethics: Integrating the Biblical and Philosophical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148-151; S. M. Olyan, *Friendship in the Hebrew Bible*, The Anchor Yale Bible Reference Libr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11-37; G. I. Davies, “The Ethics of Friendship in Wisdom Literature”, K. J. Dell, ed., *Ethical and Unethical in the Old Testament: God and Humans in Dialogu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28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0), 135-150; R. E. Clements, “The Good Neighbour in the Book of Proverbs”, 209-228; A. Scherer, “Is the Selfish Man Wise? Considerations of Context in Proverbs 10.1-22.16 with Special Regard to Surety, Bribery and Friendship”,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6 (1997), 59-70; B. K. Waltke, “Friends and Friendship in the Book of Proverbs: An Exposition of Proverbs 27:1-22”, *Crux* 38 (2002), 27-42; D.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 개론』, 강성열 역 (과주: CH

우정에 관한 격언은 형식상 우정을 나누는 주체인 ‘친구’를 뜻하는 단어 ‘레아’(רַע, 잠 17:17; 18:24; 19:4, 6; 22:11; 27:9-10, 14)와⁴⁸⁾ ‘오헤브’(אָהַב, 잠 14:20; 17:17; 18:24; 27:6)와⁴⁹⁾ ‘알루프’(אָלוּף, 잠 16:28; 17:9)와 ‘하베르’(חֶבֶר, 잠 28:24)와⁵⁰⁾ ‘메레아’(מֵרַע, 잠 19:7전)가 사용된 격언,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행위인 ‘사귀다’를 뜻하는 단어 ‘라아(II)’(רָעָה)가 사용된 격언(잠 13:20; 22:11, 24; 28:7; 29:3)으로 나눌 수 있다.⁵¹⁾ 잠언 18:24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격언은 참된 우정, 즉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이다. 왜냐하면 잠언 18:24는 상반절의 ‘레히트라오트’와 하반절의 ‘다베크’의 의미상 대조

복스, 2019), 327-332; 박요한 영식, 『잠언』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8), 259-262; 김성진, “잠언 격언(Proverbial Sayings)에 대한 해석학적 제안: 우정시(잠언 27:1-17)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Text-Linguistic Analysis)”, 『Canon & Culture』 7 (2013), 167-193; 김성진, “잠언 분석을 위한 해석학적 제안: 주제적, 전체론적, 세부적 접근”, 『ACTS 신학저널』 26 (2015), 41-78; 김성진, “잠언 10-31장의 문장잠언(Sentence Sayings)에 대한 해석학적 제안”, 『ACTS 신학저널』 27 (2016), 9-44.

- 48) ‘레아’는 구약성서에서 주로 “친구(friend)”나 “이웃(neighbour)”을 뜻하면서도 때로는 “동료(companion)”, “연인(lover)”을 의미하기도 한다. HALOT, 1254. 롱맨은 ‘레아’가 “감정의 애착”을 가리킬 때는 “친구”로, “공간적인 친밀함”을 뜻할 때는 “이웃”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롱맨도 인정하듯이 ‘레아’를 “친구”와 “이웃”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번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T. Longman III, *Proverbs*, 555. 데이비스(G. I. Davies)는 ‘레아’를 “어떤 활동에 관련된 다른 사람”을 뜻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웃”이라는 개념 역시 “공동체의 다른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 I. Davies, “The Ethics of Friendship”, 137-138. ‘레아’가 사용된 예로 위에서 언급된 격언(잠 17:17; 18:24; 19:4, 6; 22:11; 27:9-10, 14)은 각각의 문맥에서 ‘레아’가 공간적으로 가까이 거주하거나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 그 이상의 관계적 친밀함을 갖는 친구를 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49) 각주 20에서 설명했듯이 ‘오헤브’는 “사랑하다”를 뜻하는 동사 ‘아헤브’의 분사형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연인”이지만 “친구”를 가리키기도 한다. ‘오헤브’는 ‘레아’와 함께 잠언에서 친구를 뜻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된다. 데이비스나 클레멘츠(R. E. Clements)가 주장하듯이 ‘오헤브’가 근본적으로 사랑이나 애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레아’보다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친구를 의미할 수 있다. G. I. Davies, “The Ethics of Friendship”, 137; R. E. Clements, “The Good Neighbour”, 211. 그러나 ‘오헤브’와 ‘레아’의 질적 차이가 모든 곳에서 발견되지는 않으며, 문맥이 오히려 두 단어의 질적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50) ‘하베르’는 ‘레아’, ‘오헤브’와 비교할 때 구약성서 전반에서도 적게 사용되고 잠언에서는 28:24에서만 사용되었다. ‘하베르’는 “친구”보다는 “(직업상의) 동료”를 뜻한다. G. I. Davies, “The Ethics of Friendship”, 136.
- 51) 우정을 폭넓게 이해하면 더 많은 격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본 글은 연구 범위를 ‘친구 사이의 정’에 관한 격언으로 한정시킨다. 한편, 김성진은 우정을 “개인적 인간관계”로 규정하면서 “친구 사이의 지혜로운 말의 사용(11:12-13; 12:18; 16:28; 20:19)”, “친구들 사이의 상호 영향력(13:20; 14:20; 16:28, 29; 28:10)”, “친구의 가치(17:17; 18:24; 27:9-10, 17, 19; 22:11)”, “친구 사이의 지켜야 할 윤리들(11:12; 14:21; 16:29; 17:9; 23:17; 27:5, 6, 14; 26:18-19; 29:5)”,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과의 관계(14:20; 19:4, 6, 7)”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 김성진, “잠언 분석을 위한 해석학적 제안”, 55.

를 통해 형식상의 우정과 참된 우정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3.1. 지혜로운 친구와의 사귄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에서 발견되는 첫째 교훈은 참된 우정이 지혜로운 친구와의 사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우정을 친구와 나누는 정으로 이해할 때 근본적으로 그러한 정을 나누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우정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폭스가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친구들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듯이 참된 우정은 참된 친구들과의 사귄에 기초한다.⁵²⁾ 잠언 13:20은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격언이다.

사역

(잠 13:20)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사람은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사람은 해를 겪는다.

잠언 13:20은 “사귀다”를 뜻하는 동사 ‘라아’가 칼 능동분사 남성 단수형인 ‘로에(לֹאֵה)’로 사용된 우정에 관한 격언이다. 상반절의 ‘홀레크(חֹלֵק)’는 ‘로에’와 평행하면서 문자적으로 길을 함께 걷는 행위를 뜻하면서도 비유적으로는 사귄을 의미한다.⁵³⁾ 상반절과 하반절의 주어 모두 사귄을 나누는 주체로 표현되면서 각각 지혜롭게 되거나 해를 겪는, 상반된 결과를 맞는다. 그리고 이들이 상반된 결과를 맞는 이유는 사귄의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걷고 교제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면 그들처럼 해를 겪는다. 따라서 잠언 13:20이 제시하는 참된 우정의 기준은 사귄의 내용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귄의 대상이다.⁵⁴⁾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과 사귀며 그들과 우정을 쌓아가야 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처럼 지혜로워지기 위해서이다. 우정의 목적이 지혜

52) M. V. Fox, *Proverbs 10-31*, 569.

53) 리우웬(R. C. Van Leeuwen)은 상반절의 “함께 걷는 사람들”을 “길동무”로 이해한다. R. C. Van Leeuwen, “The Book of Proverbs”, 133. 지혜를 얻는 과정을 일종의 여행으로 이해한다면 그 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은 길동무이자 친구이다.

54) 잠 13:20 외에도 동사 ‘라아’가 사용된 잠 22:11, 24-25; 28:7; 29:3 역시 사귀는 대상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잠 22:11은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며 품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반면, 잠 22:24-25는 성급한 사람과 분노한 사람과 사귀지 말 것을, 잠 28:7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 것을, 잠 29:3은 매춘부와 사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각기 울무에 걸리거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거나 재물을 잃는 부정적 결과를 진술한다.

를 얻는 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우정이 아니다.

잠언 18:24는 13:20과는 다르게 우정을 나누는 대상에 따른 결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언 13:20의 관점에서 18:24를 읽는다면 하반절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상반절의 친구들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다.

3.2. 한결같은 사랑

참된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이 제시하는 둘째 교훈은 친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란 자신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친구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를 돕는 것을 뜻한다.⁵⁵⁾ 잠언 17:17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우정에 관한 교훈을 전한다.

사역

(잠 17:17)

친구는 한결같이 사랑하고 형제는 곤경에 빠진 때를 위하여 태어난다.

잠언 17:17은 상반절과 하반절의 대조보다는 상반절의 내용이 하반절에서 강조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반절이 친구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진술한다면, 하반절은 형제라면 곤경에 빠진 자신의 형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결같이”로 번역된 ‘베콜 에트’(בְּכֹל־עֵת)는 “모든 때에” 혹은 “모든 상황에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상황은 폭스가 지적하듯이 하반절의 “곤경에 빠진 때”까지도 포함한다.⁵⁶⁾ 상반절과 하반절의 주어가 각각 친구와 형제이며 동사도 “사랑하다”와 “태어나다”로 서로 다르지만, 강조하는 바는 모두 사랑이다. 친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은 그가 곤경에 빠졌을 때라도 돕는 것을 뜻한다. 잠언 17:17의 관점으로 18:24를 읽으면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지 않고 외면하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친구를 돕는 사람은 허울뿐인 친구이다. 그러나 곤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친구는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며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다.

특히 참된 우정에 관해 진술하는 잠언 18:24와 관련하여 17:17에서 주목해

55) 박요한 영식은 좋은 친구를 “항구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의 특징으로 “친구의 꾸밈음을 좋게 받아들이는(27:6), 친구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27:10)”으로 제시한다. 박요한 영식, 『잠언』, 260.

56) M. V. Fox, *Proverbs 10-31*, 633.

야 할 점은 우정과 형제애를 비교한다는 것이다. 클레멘츠(R. E. Clements)는 잠언 17:17이 “전통적으로 인간의 모든 친족 관계 중에서 가장 고결하고 헌신적이라고 간주하는 형제애의 수준으로 우정을 끌어올렸다”라고 주장한다.⁵⁷⁾ 또한 잠언 27:10도 곤경에 빠졌을 때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더 낫다고 단언한다. 잠언 18:24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우정이 형제애보다 더 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형제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가 곤경에 빠졌을 때 사심 없이 돕는 참된 우정의 표본이다.

3.3. 위장된 우정에 대한 경계

참된 우정에 관해 잠언의 여러 격언이 전하는 마지막 교훈은 위장된 우정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우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곤경에 빠졌을 때 친구를 돕는지 아닌지이다. 우정과 관련된 잠언의 여러 격언에서 곤경은 주로 경제적 빈곤으로 묘사된다. 친구는 한결같이 자신의 친구를 사랑해야 하며 빈곤에 처한 친구를 마땅히 도와야 하지만(잠 17:17), 여러 격언은 일관되게 가난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역

(잠 14:20)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그의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⁵⁸⁾ 많다.

(잠 19:7상반)

가난한 사람의 형제들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 더욱이 그의 절친한 친구들은⁵⁹⁾ 그를 자신들에게서 더 멀리한다.

57) R. E. Clements, “The Good Neighbour”, 215.

58) “사랑하는 사람들”로 번역된 ‘오하베이(אוהבי)’는 ‘오헤브’의 남성 복수 연계형이다.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오헤브’는 “사랑하다”를 뜻하는 ‘아헤브’의 칼 능동분사 남성 단수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직역될 수도 있고 “친구”를 뜻하기도 한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많은 성서 번역본은 ‘오하베이’를 “친구”로 번역하지만, 필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직역하였다. 마소라 본문에서 “친구”를 뜻하는 ‘레아’를 비롯한 다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오헤브’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머피(R. E. Murphy)가 주장하듯이 “친구”로 번역될 수 있는 ‘오헤브’에 감정적인 사랑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R. E. Murphy, *Proverbs*, 106. 그러나 필자는 친구에게까지 미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과의 극적인 대조를 위해 부자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번역하였다.

59) “그의 친구들”로 번역된 ‘메레에후(מַרְעֵיָהוּ)’는 “친구”를 뜻하는 명사 ‘메레아(מַרְעָא)’와 3인

쉐러(A. Scherer)가 주목한 바와 같이 잠언 14:20과 19:7상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인 우정과 부”를 관련짓는다.⁶⁰⁾ 잠언 14:20과 19:7상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조하는 동시에 그들이 친구들과 맺는 우정도 비교한다. 두 격언에서 가난한 사람은 친구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지만, 부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진술은 경제적 빈곤이 우정을 깨뜨리고 곤경에 빠진 친구를 미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경제적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미워하는 이유 역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클레멘츠의 설명처럼 가난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과 “큰 용기와 자립”이 필요하다.⁶¹⁾ 반면에, 부자를 사랑해서 그의 친구가 되는 데에는 자기희생과 용기보다는 그가 가진 재물에 관한 관심과 그와의 관계로 얻게 될 이익이 동인으로 작용한다. 재물과 이익을 기초로 형성된 우정은 희생과 용기에 기반해 생겨난 우정보다 견고하지 않고 한결같지도 않다. 재물과 이익이 우정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적 곤경에 빠진 친구를 도울 이유가 없기에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미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재물과 이익에 기초한 우정은 잠언에서 참되거나 진실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듯한 위장된 우정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위장된 우정은 친구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런 관점으로 잠언 18:24를 읽으면 상반절의 ‘레임 레히트라오트’는 겉으로는 친구들로 보이지만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가진 참된 우정이 없는 사람들이며, 친구가 곤경에 빠졌을 때 우정의 진위가 밝혀지는 사람들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잠언 18:24는 마소라 본문의 두 단어 ‘이쉬’와 ‘레히트로에아’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된다. 첫째, 마소라 본문의 ‘이쉬’를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경우 바로 뒤의 단어 ‘레임’과의 관계를 주어적 속격이나 속성의 속격으로 간주하지만, 불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문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마소

칭 남성 단수 대명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HALOT은 잠 19:7에서 ‘메레아’가 형제들과 평행 관계에 있으므로 “절친한 친구(bosom friend)”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HALOT, 637.

60) A. Scherer, “Is the Selfish Man Wise?”, 67.

61) R. E. Clements, “The Good Neighbour”, 220.

라 본문의 ‘이쉬’ 대신 “~이 있다”를 뜻하는 불변화사 ‘이쉬’나 ‘예쉬’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쉬’나 ‘예쉬’의 수정된 읽기는 하반절의 ‘예쉬’와 평행하면서 상반절과 하반절의 대조를 명확하게 한다고 밝혔다. 둘째, 마소라 본문의 ‘레히트로에아’로 읽는 경우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반절의 ‘다베크’와의 대조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잠언 18:24의 강조점은 많은 친구들과 한 명의 친구의 수적 비교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소라 본문의 ‘레히트로에아’ 대신 ‘레히트라오트’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레히트라오트’로 읽을 경우, 잠언 18:24는 소비적이고 피상적인 우정을 좇는 친구들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대조하는 교훈으로 이해된다. 잠언 18:24가 제시하는 피상적인 우정과 참된 우정의 대조는 우정에 관한 잠언의 여러 격언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함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문법적·문맥적 분석과 참된 우정에 관한 논의를 근거로 잠언 18:24를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피상적인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지만,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다.

“피상적인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라는 번역은 부정사 연계형 ‘레히트라오트’의 목적을 표현하는 의미와 동사상 형용사로서의 의미를 모두 반영한다. “피상적인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은 사귀는 데에 관심을 두고 사귀음을 즐긴다. 그러나 이들은 친구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면서 피상적인 우정을 나누고 있음이 드러난다. 반면, 참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친구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를 돕는다. 형제마저도 미워하는 친구를 돕고 한결같이 사랑한다. 따라서 그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참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다.

<주제어>(Keywords)

잠언 18:24, 번역, 우정, 친구, 형제.

Proverbs 18:24, translation, friendship, friend, brother.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599 Geneva Bible, Powder Springs: Tolle Lege Press, 2006.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 Sons, 1901.
Die Bibel. Herder-Ubersetzung Revidierte Fassung, Freiburg: Herder, 2005.
Einheitsubersetzung,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16.
French Bible en francais courant, Paris: Alliance Biblique Universelle, 1997.
French Louis Segond, Swi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10.
French Traduction Oecumenique de la Bible, Paris: Cerf: Bibli'o, 1988.
Jewish Publication Society Tanakh,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5.
Latin Vulgat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3.
Luther Bibl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7.
New American Standard Bible, La Habra: The Lockman Foundation, 1977.
New English Bible, Cambridge; Oxf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2011.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1982.
New Living Translation, Carol Stream: Tyndale House Foundation, 1996.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1989.
Nouvelle Edition Geneve, Geneva: Geneva Bible Society, 1979.
Revised Standard Version,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1952.
Targum Proverbs: The Late Jewish Literary Aramaic version of Proverbs from the files of the Comprehensive Aramaic Lexicon Project (CAL), Cincinnati: The 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 2005.
The Bible in Basic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9/64.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Philadelphia: American Bible Society, 1995.
The New American Bible, Washington, D.C.: Confraternity of Christian Doctrine, Inc., 1970.
The New Jerusalem Bible,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and Les Editions du Cerf, 1985.

- Young's Literal Transl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862; 1898.
- Zurcher Bib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7.
-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2022.7.30.).
- 계제니우스, W., 『계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3.
- 김성진, “잠언 격언(Proverbial Sayings)에 대한 해석학적 제안: 우정시(잠언 27:1-17)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Text-Linguistic Analysis)”, 『Canon & Culture』 7 (2013), 167-193.
- 김성진, “잠언 분석을 위한 해석학적 제안: 주제적, 전체론적, 세부적 접근”, 『ACTS 신학저널』 26 (2015), 41-78.
- 김성진, “잠언 10-31장의 문장잠언(Sentence Sayings)에 대한 해석학적 제안”, 『ACTS 신학저널』 27 (2016), 9-44.
- 박요한 영식, 『잠언』,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8.
- 에스테스, D., 『지혜서와 시편 개론』, 강성열 역, 파주: CH북스, 2019.
- 켈리, P., 마이넷, D., 크로포드, T.,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 Alter, R., *The Wisdom Books: Job, Proverbs, and Ecclesiastes: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0.
- Brown, F., Driver, S. R., and Briggs, C. A., *The New Brown, Driver, Briggs,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n Appendix Containing the Biblical Aramaic*,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9.
- Clements, R. E., “The Good Neighbour in the Book of Proverbs”, McKay, H. A. and Clines, D. J. A., eds., *Of Prophets' Visions and the Wisdom of Sages: Essays in Honour of R. Norman Whybray on His Seventieth Birthda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209-228.
- Clifford, R. J., *Proverbs: A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9.
- Clines, 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Davies, G. I. “The Ethics of Friendship in Wisdom Literature”, Dell, K. J., ed., *Ethical and Unethical in the Old Testament: God and Humans in Dialogu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28,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10, 135-150.
- Fichtner, J., “Proverbia”, Alt, A., et al.,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7.

- Fox, M. V., *Proverbs 10-31: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18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Keefer, A. J., *The Book of Proverbs and Virtue Ethics: Integrating the Biblical and Philosophical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Köhler, L. and Baumgartner, W.,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Richardson, M. E. J., trans., Leiden: Brill, 1994.
- Longman III, T.,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 McKane, W., *Proverbs*, Old Testament Library: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85.
- Murphy, R. E., *Proverbs*, Word Biblical Commentary 22, Waco: Word Books, 1998.
- Olyan, S. M., *Friendship in the Hebrew Bible*, The Anchor Yale Bible Reference Libr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 Scherer, A., “Is the Selfish Man Wise? Considerations of Context in Proverbs 10.1-22.16 with Special Regard to Surety, Bribery and Friendship”,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6 (1997), 59-70.
- Toy, C.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roverb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899.
- Van Leeuwen, R. C., “The Book of Proverb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Keck, L. E., et al.,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5,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altke, B. K. “Friends and Friendship in the Book of Proverbs: An Exposition of Proverbs 27:1-22”, *Crux* 38 (2002), 27-42.
- Waard, J. de, *Proverbs*, Biblia Hebraica Quinta 17,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8.
- Waltke, B. K.,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5-31*,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2005.
- Yoder, C. R., *Proverbs*,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9.

<Abstract>

Revisiting the Translation of Proverbs 18:24 in the Light of Sayings about True Friendship

Yong Hyun Cho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is paper revisits the translation of Proverbs 18:24 in the light of the sayings about true friendship. Proverbs 18:24 has been translated in various ways because of two words of the Masoretic text, that is, 'אִישׁ('iš)' and 'להתרעע(lēhitro'ēa)'.

First, several bibles and commentaries construe אִישׁ as a noun whose meaning is *a man*, translating it with the following word רעים(re'im) as *a man of friends*. They also consider the relation of אִישׁ and רעים as the subjective genitive (*a man who has friends*) or the attributive genitive (*a man who makes friends*). However, this reading of אִישׁ is neither grammatically correct nor contextually consistent. For this reason, the BHS apparatus suggests that אִישׁ should be read as a particle 'אש('iš) or 'יש(yeš)', which means *there is*. Such reading clearly makes the parallel betwee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one through the same word יש or at least the same meaning, *there is*. Moreover, אש or יש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friends in the first half, and a friend in the second one.

Second, some bibles and commentaries parse the word להתרעע as Hithpolel infinitive construct of רעעו whose meaning is *to be beaten up*. This reading results in the translation of the first half as follows: *A man of friends comes to ruin* or *There are friends who ruin themselves*. Yet, להתרעע gives rise to a weak opposition between *to ruin* in the first half and *clinging to* in the second one. Compared to the Masoretic reading of להתרעע, the BHS apparatus's reading of 'להתרעות(lēhitrā'ôt)' is prefer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hole verse. Considering that להתרעות means *to associate with*, the verse draws a comparison between friends who want to associate with others and a friend who clings closer than his/her brother. Indeed, Proverbs 18:24 offers a lesson about true friendship in terms of being superior to kinship. Its emphasis on true friendship is also harmonious with other sayings about friendship in the book of

Proverbs, especially focused on an association with wise friends, unconditional and selfless love, and a warning against disguised friendship.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translation of Proverbs 18:24 as follows: There are friends who maintain superficial friendship, but there is a friend who clings closer than a brother.